

HEADLINE NEWS

‘전자정부’ 구축 위해 市 홈페이지 개편 (뉴욕)

미국 뉴욕市는 市民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市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전자정부’로의 출발을 선언했다. ‘전자정부’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이 홈페이지는 市民이 정보의 공급 주체를 알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현재 市는 홈페이지를 통해 100여 가지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상으로 주차위반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견인된 차량의 상태·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간소득 2만달러 이하의 62세 이상 노인의 주택임대료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노인주택’의 위치 및 노인대상 서비스를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검사결과를 지역 및 상호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市도 市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및 상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home.nyc.gov/porta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주민이 수립·추진한 지역계획안 시행결과 발표 (시애틀)
- ② 향후 20년을 겨냥한 도시개발 기본구상 발표 (런던)
- ③ 소프트웨어산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육성 (북경)
- ④ 하천유역에 홍수 대비용 관측카메라 설치 (일본: 토요하시市)

도시환경

- ⑤ ‘시카고강 살리기 운동’ 대대적으로 전개 (시카고)
- ⑥ 자동차 CO₂ 배출감소 위해 인터넷을 통한 카풀 정보제공 추진 (포틀랜드市)
- ⑦ 공해방지 위해 ‘수소연료전지버스’ 도입 (암스테르담)
- ⑧ 건물옥상녹화, 「조례」를 통해 의무화 (동경)

도시교통

- ⑨ 호출하면 오는 수요자지향형 콜버스 ‘운행’ 일본: 이시카와縣)
- ⑩ 핸드폰을 통해 都營버스 운행정보 제공 (동경)
- ⑪ 대중교통 통합형 「스마트카드」 도입 (로마)

행.재정

- ⑫ 주요정책 결정시 ‘市民의견 반영정도 공개’ (일본: 요코스카市)
- ⑬ 업무특성에 맞춰 탄력근무시간제 실시 (일본: 히라타市)

사회복지

- ⑭ 초·중등학교 교실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 (뉴욕)
- ⑮ 고령자 주택 재산세 50% 감면 (뉴욕)

① 주민이 수립·추진한 지역계획안 시행결과 발표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는 지난 4월 30일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지역계획안에 대한 2000년도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市 발표에 따르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지역주민들이 마련한 지역계획안은 총 38건이며, 이 지역계획안에는 향후 20년간 시행될 5,000건의 정책건의를 담고 있다. 주민발의 지역계획안의 현황을 보면, 지난 18개월 동안 200여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526건의 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수백건의 사업이 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주로 교통개선, 보도(歩道) 조명시설, 서민주택, 도시공원, 지역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예술, 공공안전 강화 등과 관련되어 있다.

市는 1995년 도시지역의 집중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워싱턴州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州 성장관리법에 따라, 도시종합계획에서 정하는 성장지역을 대상으로 종전의 계획수립과정과는 달리 지역주민 스스로 이슈를 정하고 계획가를 고용하여 지역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1607&Dept=30)

② 향후 20년을 겨냥한 도시개발 기본구상 발표 (런던)

영국 런던市는 지난 5월 8일 향후 20년간 런던을 변모시킬 ‘도시개발전략을 위한 기본구상(Towards London Plan)’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런던플랜」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장래 런던 개발을 위한 사회·경제·환경 종합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계획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런던은 주거 및 업무상업공간이 부족하고, 교통·환경 부담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市는 계획의 기본방향을 분산정책보다는 경제 및 인구성장을 수용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두고, 고밀·복합용도개발 등 도시시설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망 개선·확충 등을 제안하고 있다. (www.london.gov.uk/news/2001/176-0805.htm)

③ 소프트웨어산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육성 (북경)

중국 북경市 과학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개막된 ‘하이테크 발전에 관한 포럼’에서 市가 소프트웨어산업을 하이테크산업의 핵심으로 선정, 이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市가 수립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전략의 기본골격은 ① 국제 수준의 정책·시장·개발 및 생산 환경 정비, ② 경제지표, 경제규모, 개발 및 계획수준, 브랜드제품 수 및 인지도의 중국 제일 지향, ③ 중국 최대의 종합형 소프트웨어 산업기지 완성을 통한 전국 파급효과 강화, ④ 소프트웨어산업 고도화를 통해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성장, 관련 산업규모 확대, IC 설계 수준 향상, 수출 확대 지향 등이다.

市에는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약 1,300개 社가 있으며, 관련 종사자는 대략 6만명이며, 생산량은 중국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市 과학위원회가 인가한 소프트웨어전문업체는 대략 390개 社이고, 제품은 1,178종에 이른다.

(人民日報, 5. 14)

④ 하천유역에 홍수 대비용 관측카메라 설치 (일본 : 토요하시市)

일본 아이치(愛知)현 토요하시(豊橋)시는 지난 4월부터 하천의 범람이나 해일 등의 재해에 대비해 하천유역에 약 20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市 하천과 소방본부에서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시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은 매 5초마다 갱신되며, 상류의 수위나 시간당 강우량 등의 데이터도 동시에 나타나도록 해 하천 등의 범람의 위험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이 호우나 홍수 경보를 발령하게 되면 가동된다.

(아사히신문, 4. 6)

5 '시카고강 살리기 운동' 대대적으로 전개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시카고강(Chicago River)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市民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결과, 현재 市民들이 즐겨 찾는 대상이 되어, 이른바 '친구가 많은 강'으로 불리게 되었다. 특히, '시카고강을 사랑하는 모임'의 활발한 운동에 힘입어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했다. 市가 시카고강의 환경과 생태 복원을 위해 취한 조치로는, 강변개발을 유보하고 대규모의 공공용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 및 강 양안의 개발지침 제정, 연방·州·지방정부·민간단체 공동으로 복원계획 수립, 민간의 강 가꾸기 행사 개최 지원 등이 있다.

특히, 市는 최근 시카고강을 1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시책(Chicago River Clean-up Program)을 전개했다. 이 작업은 市의 유관부서들이 합동으로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교각 및 강둑의 폐기물을 제거하고 관리되지 않고 자라고 있는 수목을 정비했다.

(www.cityofchicago.org/Environment/Rivertour/comm/env/index.html)

(www.cityofchicago.org/StreetsAndSan/PressReleases/RiverCleanUp.html)

6 자동차 CO₂ 배출감소 위해 인터넷을 통한 카풀정보제공 추진 (포틀랜드市)

미국 포틀랜드市 교통관리국은 지난 5월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탑승자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새로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기후변화방지협회'와 체결했다. 市는 이러한 카풀정보교환 활성화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 더 나아가 향후 10년간 약 6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승용차·밴 풀을 제공하려는 운전자와 수요자가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풀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탑승자 선택을 운전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짧은 기간에 운전자와 탑승자가 연결되는 편의성을 확보한다. (www.epa.gov/globalwarming/visitorcenter/lists.html)

7] 공해방지 위해 ‘수소연료전지버스’ 도입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런던 등 유럽 9개 도시는 ‘수소연료전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만든 수소연료 전지(HFC)는 깨끗한 수증기만을 배출한다. 따라서 천연가스버스보다도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는 편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Evobus」 버스는 독일의 자동차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약 2~3년간의 시범운행을 거쳐 2002년 말~2003년 초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암스테르담, 런던 이외에도 룩셈부르크,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바르셀로나, 스톡홀름 등 9개 도시에서 약 50여대의 버스가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현재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지만 대량 공급되면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ww.press.detr.gov.uk) (Mass Transit, 2001. 5)

8] 건물옥상녹화, 「조례」를 통해 의무화 (동경)

東京都 특별구들은 현재 빌딩의 옥상녹화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대규모사업소를 대상으로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都는 부지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를 하도록 한 데 반해, 시부야區는 10월부터 민간사업자가 부지면적 300㎡ 이상의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 건축면적의 20% 이상을 옥상녹화하도록 조례를 통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주쿠區는 7월부터 민간사업자는 부지면적 1,000㎡ 이상, 공공기관은 250㎡ 이상의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 수목을 심을 수 있는 옥상의 면적 중 2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각 區가 옥상녹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상업 및 택지 개발이 진행되어 녹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건폐율이 높은 상업구역의 비율이 높고, 건물주변에 녹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물옥상녹화는 도시열섬현상의 완화 및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經濟新聞, 6. 1)

9 호출하면 오는 수요자지향형 ‘콜버스’ 운행 (일본 : 이시카와縣)

일본 이시카와(石川)현의 노토중앙버스는 지난 4월부터 아나미즈(穴水)-와지마(輪島)간 노선에서 「수요대응형 버스(Demand Bus)」 4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 버스는 기존노선 외에 공립 아나미즈 종합병원과 市立 와지마병원의 2곳에 설치된 ‘호출장치’를 이용자가 누르면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이 버스업체는 버스정류장에서 거리가 먼 지역 2곳에도 이 버스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www.fcci.or.jp/fttrf/pub-trp/trantpc.htm)

핸드폰을 통해 都營버스 운행정보 제공 (동경)

東京都 교통국은 금년 중 핸드폰을 통해 버스의 주행위치나 정류장 도착예정 시각 등 都營버스의 운행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都는 내년부터 여러 요인으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의 승객확보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확보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핸드폰을 통한 버스운행정보 제공은 무선시스템으로 수신되는 주행중인 버스의 위치정보와 정류장간의 평균소요시간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해 정류장도착예정 시각이나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을 산출하고, 이용자는 핸드폰을 통해 都營버스의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서비스는 2002년 중에 무선시스템이 없는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 제공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5. 29)

대중교통 통합형 「스마트카드」 도입 (로마)

이탈리아 로마의 대중교통국은 최근 대중교통 통합형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로마와 교외지역인 Lazio에서 버스, 경전철, 지하철, 교외철도 등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교통국은 자체 운영하는 5천대의 버스와 76개의 철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Metrobus’ 스마트카드를 이번에 도입했다.

(Mass Transit, 2001. 5)

주요정책 결정시 ‘市民의견 반영정도’ 공개 (일본 : 요코스카市)

일본 요코스카(横須賀)시는 ‘정보공개 조례’나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등 市民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시 市民의 의견을 반영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市 홍보지를 통해 정책초안을 市民들에게 알린 후 市民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市는 수렴된 市民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案)을 수정하고,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市民의 소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즉, 이 제도는 市民의견 수렴에 대한 행정당국의 ‘설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市는 「퍼블릭 코멘트 조례안(案)」의 결정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6월 4일부터 25일까지 市 홈페이지 및 市 행정정보코너를 통해 조례초안 등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市民의 의견을 듣고 있다.

(www.tokyo-np.co.jp/kgw/index.shtml)

업무특성에 맞춰 탄력근무시간제 실시 (일본 : 히라타市)

일본 야마가타(山形)현 히라타(平田)시는 지난 4월부터 직원이 밤에 출근할 때에는 낮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업무성격상 주로 밤에 일하는 직원이 많은 것을 고려한 제도이다. 아울러 직원의 건강도 배려하면서 야근수당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이 제도는 市 직원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출퇴근 및 휴식시간을 스스로 정해 하루 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市는 직원들이 밤에 일해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4. 4)

초·중등학교 교실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 (뉴욕)

미국 뉴욕시는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실에 총 21,000개의 소형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교실도서관'은 3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수업을 받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계획을 위해 총 3,150만 달러를 투입키고 하고, 우선 금년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 도서관을 설치할 방침이다.

(The New York Times, 5. 30)

고령자 주택 재산세 50% 감면 (뉴욕)

미국 뉴욕시는 고령자복지 차원에서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50% 감면대상 자격은 적어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대상주택이 거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적 거주지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가 공동 소유자라면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배우자 또는 제대군인의 배우자로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미망인의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연간소득이 약 3,600만원 이하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www.ci.nyc.ny.us/html/dfta/html/benefitframe.html)